

인쇄전문 아파트형 공장으로

서
울
제
일
인
쇄
조
합

1993년, 18개 업체가 각자 내 공장을 갖고 협동과 협력화를 통해 생산성을 증대시켜 보자는 취지로 설립된 서울제일인쇄정보사업협동조합(이사장 강동환·정우당인쇄대표)이 오는 6월 22일로 개관 10주년을 맞이한다.

10년을 결산한다면 대체적으로 성공적이라는 평가이다. 동종업체간 아파트형 공장이 대부분 실패했지만 일부의 우려와 우려곡절 속에 출범한 서울제일인쇄조합이 타 업종에서도 보기 드물게 성공적으로 안착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데는 조합원 상호간의 협력과 한 건물 내에서 대량의 인쇄물이 단시간 내에 생산, 납품이 이루어지기 때문.

충정로에서 시작

서울제일인쇄정보사업협동조합은 88년부터 시작되었다. 88년 11월 서울조합원들이 모여 아파트형 공장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으며 다음해에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협동화 사업실천 계획을 승인 받은 후 90년에 조합 설립허가를 받아 서대문구 충정로 부근에 부지를 매입했다. 그러나 민원이 발생하여 현재의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 2가 277-7의 부지 765평을 다시 매입하여 지하 2층 지상 4층의 3천여평 건물을 93년 5월 완공했다. 이때까지 함께 한 조합원은 18개사.

초대 이사장은 이충원 선문사사장(1990년부터 94년 2월 24일까지)이 맡았으며 94년 2월 25일부터 97년 2월 26일까지는 이양재 양정사사장이, 97년 2월 27일부터 2000년 2월 25일까지는 이일우 인성사사장이, 2000년 2월 26일부터 2003년 2월 27일까지는 유덕근 유정컴퍼니사장이 역임했다. 현재는 강동환 정우당인쇄 사장이 맡고 있다. 초대 이사장 이충원사장은 조합건물 건축과 조합의 안정적 출발에 많은 기여를 했다는 평가다.

현재 제일 조합 내에서 가동되는 인쇄시설은 5색 오프셋인쇄기 1대를 비롯 4색 9대, 2도 양면 3대, 스티커 인쇄기 4대, 활판인쇄기 2대 외에 각종 제본시설과 출력시스템이 설치돼 신규 인쇄기술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 건물의 특징은 완벽한 물류시설을 갖추고 있다는 점. 카리프트 2대, 화물승강기 1대가 가동되고 있고 43대의 차량이 동시에 주차 가능한 공간이 확보돼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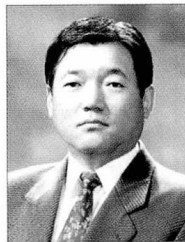
〈역대 이사장〉



이충원 사장



이양재 사장



이일우 사장



유덕근 사장



강동환 사장

안착



조합원 업체 및 주요 생산품

조합원업체	주요생산품	조합원업체	주요생산품
한일문화사(주) (김진관)	캘린더, 홍보용 인쇄	인성사 (이일우)	홍보용 인쇄
(주)유정컴퍼니 (유덕근)	홍보용 인쇄, 출판	삼부문화(주) (송제한)	사무용 인쇄
태양상사 (손안구)	홍보용 인쇄	금석프린텍(주) (박경섭)	홍보용 인쇄
정우당인쇄사 (강동환)	홍보용 인쇄	상진테크 (박태구)	홍보용 인쇄
동강뽐(주) (이형중)	사무용 인쇄	을지인쇄(주) (김건국)	기획, 디자인
선문사 (이충원)	홍보용 인쇄	로얄인쇄 (이호영)	스티커 인쇄
양정사 (이양재)	홍보용 인쇄	(주)ENE (서기원)	홍보용 필름 출력

인쇄기 15대 가동돼

처음에 협동화 사업에 참여하겠다고 신청한 업체는 70여개 사에 달했다. 그만큼 내 공장을 가져 보자는 일념이 컸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되면서 참여 업체가 줄어들어 현재의 성수동 아파트형 공장으로 입주할 때는 18개사 만이 함께 했다. 18개사 중에서도 그동안 4개사가 탈퇴하여 현재는 14개 조합원이 입주해 있는 상태.

타 업종에서 만든 아파트형 공장들이 본 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대부분 실패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일조합이 안착할 수 있었던 데는 조합원들의 노력과 부동산 경기 등 시대적 흐름을 잘 타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한 조합원은 아마 그때 이곳으로 오지 않았다면 영원히 내 사업장을 갖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현재 조합을 떠나려는 업체는 없다고 한다. 입주 초기에는 인쇄기계가 많지 않아 여유 공간이 있었지만 이제 빈 공간은 고사하고 자리가 부족해 아우성이라는 것이 조합 측의 설명이다.

조합원들은 충청로에서 시작한 것보다 이곳에 자리를 잡은 것을 다행으로 여긴다. 성수동 일대로 인쇄업체들이 대거 이전해 중구와 구로공단을 제외하면 제3의 인쇄타운이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입주 조합원들은 초창기 지원받은 융자금도 대부분 상환하여 이제 완벽한 자가 공장을 소유한 셈.

그러나 공동구판매 사업이 저조한 실적에서 보듯 아직도 협동화 사업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점과 공동 발전을 위해서는 인화단결이 중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귀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인화단결로 공동발전 최선”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취임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경선없이 이사장으로 추대해준 조합원들의 깊은 뜻을 살려서 조합 발전을 위한 일에 헌신코자 합니다. 저는 이 사장이 되었다고 해서 “내 임기 중에 무언가를 하나 해야겠다” 뭐 그런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조합의 내실을 기해 자생력을 기르고 조합원들이 단합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는데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어느 조직이나 단체가 그렇듯이 다소의 불협화음은 있게 마련인데 우리 조합은 그래도 화합이 잘 되는 편입니다. 그러나 경기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동종업체가 한 건물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다 보니 약간의 문제들도 발생합니다. 우리는 한지붕에 14가족이 모여사는 대가족입니다. 그래서 저는 공동발전을 이룰 수 있는 화합과 단합을 이루는 일에 정진코자 합니다.

올해로 개관 10주년을 맞이했는데요.

그렇습니다. 올해로 꼭 10년이 되었습니다. 지난날을 되돌아 보면 어려움도 많았지만 이제 우리 조합원들이 초창기에 지원을 받은 용자금에 대부분 상환하고 안정적으로 기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서 참으로 기쁩니다. 그리고 처음 입주했던 조합원들 중 일부는 변동이 있지만 80% 이상이 조합내 공장에서 기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은 우리 조합이 성공적이라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지난 10년이 안착을 이루는 시기였다고 볼 때 앞으로 10년은 도약과 성장의 시기가 되어야겠지요.

그동안 어려움도 많았을 텐데요.

1988년에 서울조합에서 신청을 받았는데 처음엔 70여개사가 참여를 했어요. 그러나 이런 저런사정으로 18개사만 함께 하게 되었는데 처음엔 이곳이 아니고 서대문구 충정로 근처에 부지를 매입해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민원이 발생되어 이곳으로 정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성수동으로 오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랬습니다만 처음엔 중구를 떠나면 사업이 어려울 것으로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 예상은 다행히 빗나갔지요. 지금은 대부분 만족하는 상황입니다.

아파트형 공장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아파트형 공장의 근본 취지가 협동 화사업장 아닙니까. 우리 조합은 현재 14개사(비 조합원 포함 23개사)가 운영되고 있는데 종이만 들어오면 기획에서 필름제작, 인쇄, 제본, 배송이 완벽하게 이루어

어집니다. 우리 조합에는 2도 양면인쇄기 이상의 오프셋인쇄기만 해도 13대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 우리 조합 규모의 인쇄전용 아파트형 공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주년 기념식은 어떻게 구상하십니까.

아시다시피 경기가 너무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10주년의 의미 또한 축소되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조합원들과 협의해서 적당한 규모의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조합 운영은 어떤 방향으로 하실 계획인가요.

사실 사업조합은 명칭이 상징하듯 이 사업을 해서 이익을 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합도 공동판매와 공동구매 사업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원활한 편은 되지 못합니다. 앞으로 좀더 진솔한 자세로 조합원들에게 호소하여 공동구매 사업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조합원이나 인쇄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글쎄요. 제가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게 더불어사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 마음이 합쳐지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지 않습니다. 모두가 공동발전을 위해 모였던 초심의 자세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취재 유창준국장, 사진 이용우기자